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2017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연 수 개 요 】

- 연수기간 : 2017. 6. 24.(토) ~ 7.1.(토) / 6박 8일
- 연수국가 : 뉴질랜드, 호주(2개국)
- 연수인원 : 8명(위원 6, 전문위원실 2)
- 연수목적
 - 문화관광자원 유산화 현장 및 우수복지정책 케이스 스터디
 - 선진 의정활동자료 수집 및 도정 접목 정책방안 도출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1
II. 방문국 일반개요	4
1. 뉴질랜드	
2. 호주	
III. 세부 연수방문 결과	
1. 뉴질랜드	
1-1. 와이토모 동굴 탐방	6
1-2. 아그로돔 농장 견학	8
1-3. 테푸이아 마오리 빌리지 견학	10
1-4. 거번먼트 가든 방문	12
1-5. 레드우드 수목원 탐방	15
2. 호주	
2-1. ANZAC 전쟁기념관 방문	17
2-2.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방문	19
2-3.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21
2-4. 원더미어 요양원(서머힐) 방문	23
IV. 총 평	25
V. 기타 자료	26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2017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7. 6. 24.(토) ~ 7. 1.(토), 6박 8일
- 연수국가 : 뉴질랜드, 호주(2개국)
- 연수인원 : 8명(위원 6, 전문위원실 2)
- 주요내용
 - 사회복지 안정망 구축 현황 연구
 - 시드니 노인 복지시설 방문 : 윈더미어 요양원(Windermere aged care facility)
 - 호주 우수 국가보훈·현충시설 방문(현화 및 추모) : ANZAC 전쟁기념관
 - 체육분야 발전방안 비교 연구
 - 공공체육시설물 구축 및 활용방안 사례 : 거번먼트가든
 - 일류 관광 선진국의 핵심정책 현장 케이스스터디
 - 석회암 지대(카르스트지형)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례 : 와이토모 동굴
 - 강원도 산지의 농장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사례 : 아그로돔 농장
 - 지역 고유 토착문화의 보존 및 유산화 현장사례 : 테푸이아 빌리지
 - 산림시설 조성 및 관리 우수사례 : 레드우드 수목원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폐광 특성화 사례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각종 의정활동 자료 수집
 - 호주 관광산업현황(안아웃바운드) 및 관광 진흥정책 연구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 강원도 상생발전 전략 모색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 호주 시드니 한인회 방문

○ 연수일정(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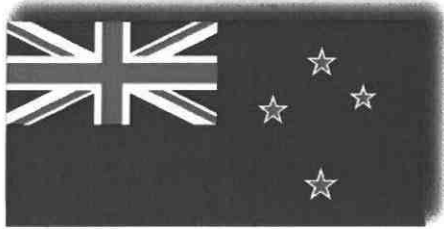
	
뉴질랜드 6월25일~6월28일 ① 오클랜드 ② 와이토모 ③ 로토루아	호주 6월28~7월1일 ① 시드니 ② 블루마운틴(시드니 근교)

○ 연수일정(시간)

일 시	지 역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제1일 6/24 (토)	인 천	15:00 16:50	■ 인천공항 도착 ■ 인천 국제공항 출발 (인천→오클랜드, 11시간 20분 소요)	
제2일 6/25 (일)	오클랜드 와이토모 로토루아	07:10	■ 오클랜드 도착 ■ 석회암 동굴지대 개발 사례 비교 연구 (강원도 석회암 카르스트지대 개발사례 비교고찰) ■ 와이토모 동굴	
제3일 6/26 (월)	로토루아	전 일	■ 전통문화 관광활성화 사례 현장 방문 (강원도 고유 문화 및 대관령 목장 등 비교고찰) ■ 아그로돔 농장 및 테푸이아 빌리지 ■ 공공체육시설물(잔디볼링장) 활용 현장 방문 ■ 거번먼트 가든	
제4일 6/27 (화)	로토루아 오클랜드		■ 산림시설 조성관리 연구 및 관광자원화 현장 견학 ■ 레드우드 수목원	
제5일 6/28 (수)	오클랜드 시드니	08:35 10:15	■ 오클랜드 출발 ■ 시드니 도착 ■ 호주 우수 국가보훈·현충시설 견학 ■ ANZAC 전쟁기념관 헌화 및 추모 ■ 호주 관광산업현황 청취 및 관광활성화 사례연구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방문	
제6일 6/29 (목)	시드니 및 근교	전 일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관광자원화 현장 견학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호주 시드니 한인회 방문	
제7일 6/30 (금)	시드니	전 일	■ 노인 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 Windermere aged care facility 방문(서머힐)	위문품 (보은양말)
제8일 7/1 (토)	시드니 인 천 춘 천	07:45 17:45 21:00	■ 시드니공항 출발 (시드니→인천, 11시간 소요)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춘천 도착	

○ 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한 글	영 문		
1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CHO, YOUNGKI	남	
2	"	부위원장	유정선	YOU, JUNGSUN	여	
3	"	위 원	구자열	GU, JAYEAL	남	
4	"	"	권석주	KWEN, SEGZOO	"	
5	"	"	김기철	KIM, GICHEOL	"	
6	"	"	이정동	LEE, JUNGDONG	"	
7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주무관	채승복	CHAE, SEUNGBOK	"	
8	"	"	김예용	KIM, YEYONG	"	

○ 뉴질랜드(New Zealand)¹⁾

■ 일반현황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수 도 : 웰링턴
- 인 구 : 약 450만명('16년)
- 면 적 : 27만km²(한반도의 1.2배)
- 민족구성
 - 유럽인 68%, 마오리족 14%,
 - 아시아계 9.2%, 폴리네시아인 6.9%
- 종 교
 - 성공회(17%), 카톨릭(14%), 개신교(11%)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시 차 : 우리시각+3(서머타임+4)

■ 정치현황

- 정 체 : 입헌군주제
 - 영국여왕이 국가원수, 총독이 대리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주요 지도자
 - 총 독 : 제리 마티파라이
 - 총 리 : 존 키

■ 경제현황('15년) ※ IMF

- 국내총생산(GDP) : 1,999억불
- 1인당 GDP : 44,342불
- GDP 성장률 : 2.3%
- 교 역 : 696억불
 - 수 출 : 343억불
 - 수 입 : 353억불
- 외환보유고 : 178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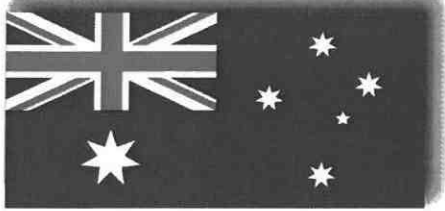
■ 우리나라와의 관계

- '62.3.26. 외교관계 수립
- 공관현황 : 상주대사관 설치(71.7월)
- 수출입동향 및 주요품목('15년)
 - 교역액 : 25.2억불
 - 수출 : 12.6억불(석유제품, 자동차 등)
 - 수입 : 12.6억불(목재, 낙농품 등)
- 양국간 투자현황('16년 누계)
 - 對 뉴 투자 : 5.08억불
 - 對 한 투자 : 0.86억불
- 인적교류(15년) 출처 : 한국관광공사
 - 방한 뉴질랜드인 : 55,488명
 - 방뉴 한국인 : 30,805명
- 교민 : 약 30,174명('14년)

1) 자료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08/1_22915.jsp?menu=m_40_20_20#contentAction2

○ 호 주(Commonwealth of Australia)²⁾



■ 일반현황

- 국 명 :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 도 : 캔버라
- 인 구 : 약 2,400만명('16년)
- 면 적 : 768만km²(한반도의 35배)
- 민족구성
 - 앵글로색슨 80%, 아시아, 원주민 및 기타 20%
- 종 교
 - 기독교(67%), 무종교(26%), 기타(7%)
- 언 어 : 영어
- 시 차 : 우리시각+1(서머타임+2)

■ 정치현황

- 정 체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 영국여왕이 국가원수, 총독이 대리
- 의회구성 : 양원제(상원76석,하원150석)
- 주요 지도자
 - 총 독 : Peter Cosgrove
 - 총 리 : Malcolm Turnbull

■ 경제현황('15년) ※ IMF

- 국내총생산(GDP) : 1조2,257억불
- 1인당 GDP : 51,284불
- GDP 성장률 : 2.5%
- 교 역 : 3,962억불
 - 수 출 : 1,890억불
 - 수 입 : 2,072억불
- 산업구조 : 1차산업(농업,광업) 및 3차 산업(금융, 서비스) 비중이 큰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제조업 취약

■ 우리나라와의 관계

- '61.10.30. 외교관계 수립
- 교민현황 : 약 15만 4천명('15년)
- 입출국자현황(총 약 38만 4천명)('15년)
 - 한국인 호주방문 : 약 25만 1천명
 - 호주인 한국방문 : 약 13만 3천명
- 교역 : 272억불 ('15년)
 - (수출 : 108억불/수입 : 164억불)
- 양국간 투자현황('15년 누계)
 - 對 호주 투자 : 109억불
 - 對 한국 투자 : 24억불

2) 자료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countries/southasia/countries/20110810/1_23052.jsp?menu=m_40_20_20#contentAction1

III

세부 연수방문 결과

1-1. 와이토모 동굴 탐방 (6.25.일)

○ 방문목적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르스트지형³⁾인 강원도 남부권 일원에 산재한 석회암 동굴지대 개발사례와 비교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함

○ 방문현황

- 와이토모 동굴(Waitomo Glowworm Caves)은 학명 *Arachnocampa luminosa*인 개뿔벌레류(일종, 반딧불)의 유충(Glowworm)이 동굴내에 서식하며, 빛어내는 광경으로 유명한 곳이며, 이 유충은 뉴질랜드에서 발견되는 희귀종임. 와이토모란 마오리어로 물과 동굴을 뜻함
- 약 3천만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로 1887년 마오리 부족장 타네티노라우와 영국인 측량기사 프레드 메이스에 발견됐으며, 동굴 내 천장을 뒤덮으며, 영롱하게 반짝이는 수많은 유충을 지하강물 따라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체험할 수 있음. 또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스쇼가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격찬했던 동굴임

< 의정활동 착안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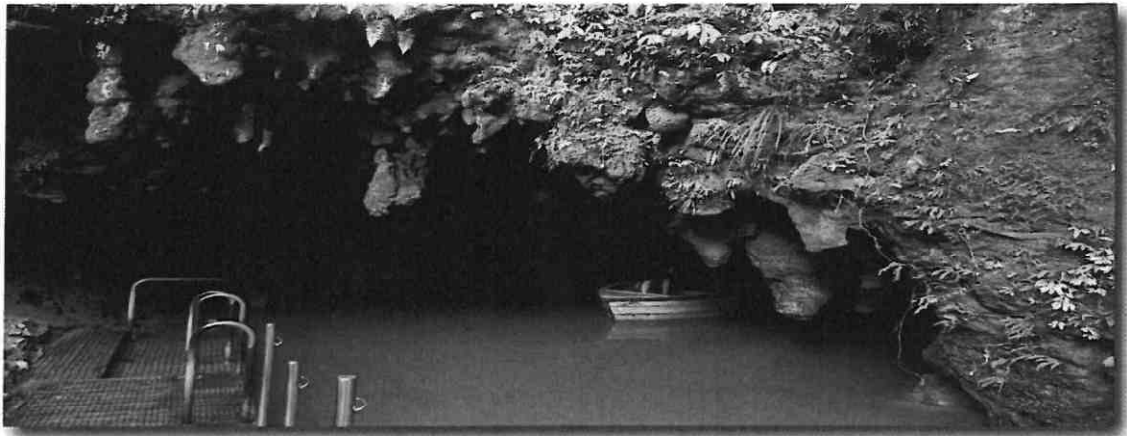
- 자연적으로 독특한 모양을 형성하며, 생성된 석회종유 동굴에서 자생하는 특유의 Glowworm을 이용하여, 관광명소한 것으로만 보일 수 있으나,
- 동굴 내 또는 동굴 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adventure experiences 또는 tour를 실시하고, 주변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캠프, 주말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음
- 강원 남부권에 산재한 석회동굴(가령, 환선굴, 대금굴)이 와이토모동굴의 경관에 못지 않으므로, 관람구역과 보존구역의 철저한 구역화(zoning)와 가이드라인 하에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지질학 스터디, 동굴수로 고무 튜브타기, 레펠체험 등) 벤치마킹 필요

3) 카르스트(Karst)지형: 석회암 지역이 빗물이나 지하수의 침식을 받아 이루어진 특수한 지형으로 남한에는 강원 남부, 충북 북동부 및 경북 북부지역의 고생대 조선계 지층 석회암 지대에 대표적으로 분포

○ 주요 활동사진



《 와이토모동굴 방문자센터 》



《 와이토모동굴 진출입로 》



《 와이토모동굴 각종 TOUR 활동4) 》

4) 자료출처: 와이토모동굴 공식홈페이지 <http://www.waitomocaves.com/>

1-2. 아그로돔 농장 견학 (6.26.월)

○ 방문목적

- 강원도 1차 산업(축산업) 관광산업화 및 발전방안 우수 사례 비교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 방문현황

- 뉴질랜드의 양 사육과 관리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로, 매일 3회에 걸쳐 19종의 양을 볼 수 있으며, 양털 깎기쇼, 양몰이개의 시범을 볼 수 있고, 소 젖을 짜고, 새끼 양에게 우유를 먹이는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또한, 진행되는 쇼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동시통역 해주는 이어폰을 제공해,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제공함
- 뉴질랜드 경제는 대부분 농목에 의존하고 있으며, 목양(牧羊)은 제1의 산업임. 양모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상품이 수출의 55%이며, 그 외 육류, 유제품 또한 양모에 버금가는 수출품이므로, 아그로돔 농장은 뉴질랜드 기간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 의정활동 착안 사항 >

- 약 1.4km² 면적의 농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체험활동⁵⁾(양을 비롯한 7종의 동물 먹이주기, 키위농장체험, 팜쇼, 마차체험, 양모직조시연 등)이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한국관광의 별(생태관광자원 부문, 최우수관광지)에 평창 대관령이 선정되었는데,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대관령하늘목장, 대관령삼양목장, 대관령양떼목장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관광형 목장이 대관령에 집중되어 있어, 아그로돔 농장의 성공사례 적용 필요
- 첨단목장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1차, 2차 산업에 '관광'과 '학습'을 융합한 제6차 산업형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강원도 산악형 어트랙션시설(가령, 케이블카, 산악열차, 체험형전망대)이 구비될 필요가 있음

5) 자료출처: 아그로돔 공식홈페이지 <http://www.agrodome.co.nz/>

○ 주요 활동사진



《 아그로돔 농장 방문자센터 》



《 아그로돔 농장 팜쇼(farm show)[19종의 양 소개 등] 》



《 아그로돔 농장 팜쇼(farm show)[양몰이 개 시범] 》

1-3. 테푸이아 마오리 빌리지 견학 (6.26.월)

○ 방문목적

- 뉴질랜드 고유 토착문화의 계승발전 및 유산화 현장 견학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현대적 발전과 강원도 고유 향토문화 및 지역 정체성 확립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함

○ 방문현황)

- 뉴질랜드 북섬 타우포 화산지대의 로토루아 지열 지역에 위치하며, 와카레와레와(Wakarewarewa)라고도 불리며, 마오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로토루아 대표명소임. 원래는 1325년 이 일대를 점령한 마오리 테 푸이아(Te Puia)의 요새였으며, 전쟁에서 함락할 수 없는 요새로 알려져 왔다. 그 후 마오리족들은 이곳에서 계속 살아왔고, 이 계곡에서 열과 요리를 활용한 다양한 지열 활동을 영위해 왔음
- 전통양식을 간직한 테아로누이아루아(Te Aronui A Rua) 공화당 마당에서는 마오리족 전사의 공연과 전통방식으로 식량을 저장하던 창고 파타카(Pataka) 등 민속마을 양식과 의류 등을 볼 수 있고, 입구의 마오리 공예학교에서는 다양한 마오리 전통 공예품, 조각품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산책길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날지 못하는 새 키위(Kiwi) 하우스와 진흙열탕을 볼 수 있으며, 약 30m 높이까지 치솟는 포후투(Pohutu) 간헐천으로 대표되는 온천지역을 체험 가능

< 의정활동 착안 사항 >

- 강원도만의 고유문화자원(정선아리랑, 강릉단오, 해양내륙산지문화, 지역축제자원)을 보다 정교하게 연구하여(강원학연구센터와 연계), 강원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융합된 문화관광자원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테푸이아 빌리지에서는 전통공예를 비롯한 볼거리, 지열로 요리한 먹거리, 하카를 비롯한 즐길거리 등이 모두 포함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 및 해양자원 또는 호수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토착고유문화의 창의적인 발전계승을 도모해야 함

6)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99%80%EC%B9%B4%EB%A0%88%EC%99%80%EB%A0%88%EC%99%80>

○ 주요 활동사진



《 테푸이아 마오리 빌리지 》



《 테푸이아 마오리 빌리지 공화당 》



《 간헐천 온천지역 》

1-4. 거번먼트 가든 방문 (6.26.월)

○ 방문목적

- 도심 내 공원, 체육시설 등 우수 공공시설 구축현황과 활용사례 현장방문으로 강원도 주민복지향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연구

○ 방문현황

- 로토루아의 중앙부에 위치한 공원으로(마오리어로 Paepaekumana로도 알려짐), 1908년 개장하여 한때 온천(Bath House)로 사용되었던(現 로토루아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거번먼트 가든(일부)은 뉴질랜드 역사지구⁷⁾로 등재·관리되고 있음
- 공원 내에 스포츠시설로는 수영장, 볼링그린(잔디볼링장), 크로케 구장 등이 있어, 주민의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었음. 또한, 로토루아 볼링클럽을 비롯 각종 스포츠클럽이 왕성하게 조직되어 있었으며, 해당 스포츠의 클럽하우스가 있어, 지역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 의정활동 착안 사항 >

- 도심 중앙부에 위치한 녹지공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자 공공체육활동의 장소로 강원도 도민의 편의향상을 위해 친환경 공간 조성 및 다양한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꾸준한 확충이 필요함
- 잔디볼링의 경우, 노인계층의 건강증진 및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일정 시간 체육 활동이 이뤄지면, 복지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복지비용 경감을 도모하고 있었음
- 전국 최상위권의 노령화지수를 나타내는 강원도는 주로 노령인구가 이용하는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등 공공체육시설을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꾸준히 확충하고, 또한 구축된 체육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연령층의 클럽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자료출처: Heritage New Zealand <http://www.heritage.org.nz/the-list/details/7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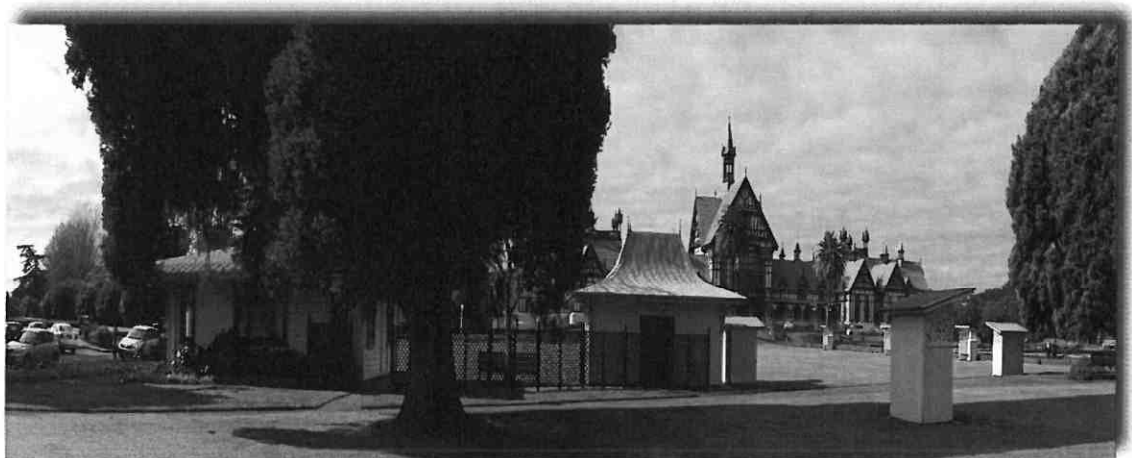
○ 주요 활동사진



《 거번먼트 가든 》



《 거번먼트 가든 》



《 거번먼트 가든 》



《 거번먼트 가든(잔디볼링장) 》



《 거번먼트 가든(잔디볼링장 클럽하우스) 》

1-5. 레드우드 수목원 탐방 (6.27.화)

○ 방문목적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은 OECD국가 중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은 4위에 위치. 또한 전국의 산림면적은 633만 5,000ha로 이 가운데 강원도 산림면적은 137만 ha로 21.6%이며, 강원도 전체 면적 대비 산림비율도 8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이에, 뉴질랜드 수목원 조성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함

○ 방문현황⁸⁾ (Redwoods and Whakarewarewa Forest)

- 로토루아 중심으로부터 남동쪽으로 5km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트레킹, 승마, 산악자전거 등 종류별 및 수준별 코스 구비)이 이뤄지고 있음
- 288 헥타르의 자생 및 도입수종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숲에는 170종의 나무가 원래부터 식재되어 있었으며 기후가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나무의 생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빠름
2차 대전 당시 목숨을 바친 뉴질랜드 병사들을 위해 산림청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준 미국 캘리포니아산 레드우드를 식재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레드우드 산림욕장이 되었으며, 1970년 Redwoods Memorial Grove walking track을 시작으로 일반 대중에게 개방

< 의정활동 착안 사항 >

- 강원도는 지속적인 산림녹화사업으로 산림자원가치가 높은 21년에서 50년된 나무로 이뤄진 '장령림' 비중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⁹⁾.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파생산업 및 콘텐츠를 준비하고, 특히 날로 증가하는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숲의 휴양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발전을 두루 도모할 필요 있음

8) 자료출처: 레드우드수목원 공식홈페이지 <http://redwoods.co.nz/>

9) 자료출처: 춘천MBC 뉴스

https://www.chmbc.co.kr/news/chnews_view.asp?seq_num=20161026002000000000T&air=2016-10-26

○ 주요 활동사진



《 레드우드 수목원 》



《 레드우드 수목원 》

2-1. ANZAC 전쟁기념관 방문 (6.28.수)

○ 방문목적

-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호국보훈시설을 방문하여,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고, 참전용사의 희생에 최고의 예우를 하는 선진국의 우수 보훈시설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방문현황¹⁰⁾

- ANZAC 전쟁 기념관(영어: ANZAC War Memorial)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하이드 파크에 위치한 군사 기념관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전몰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934년 11월 24일 완공됨. 전쟁 기념관의 이름인 ANZAC은 '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약자로 1차 세계 대전에 참여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을 의미함. 또한, 아르데코양식의 건물로 세계적으로도 꼭 가 봐야할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임

< 의정활동 착안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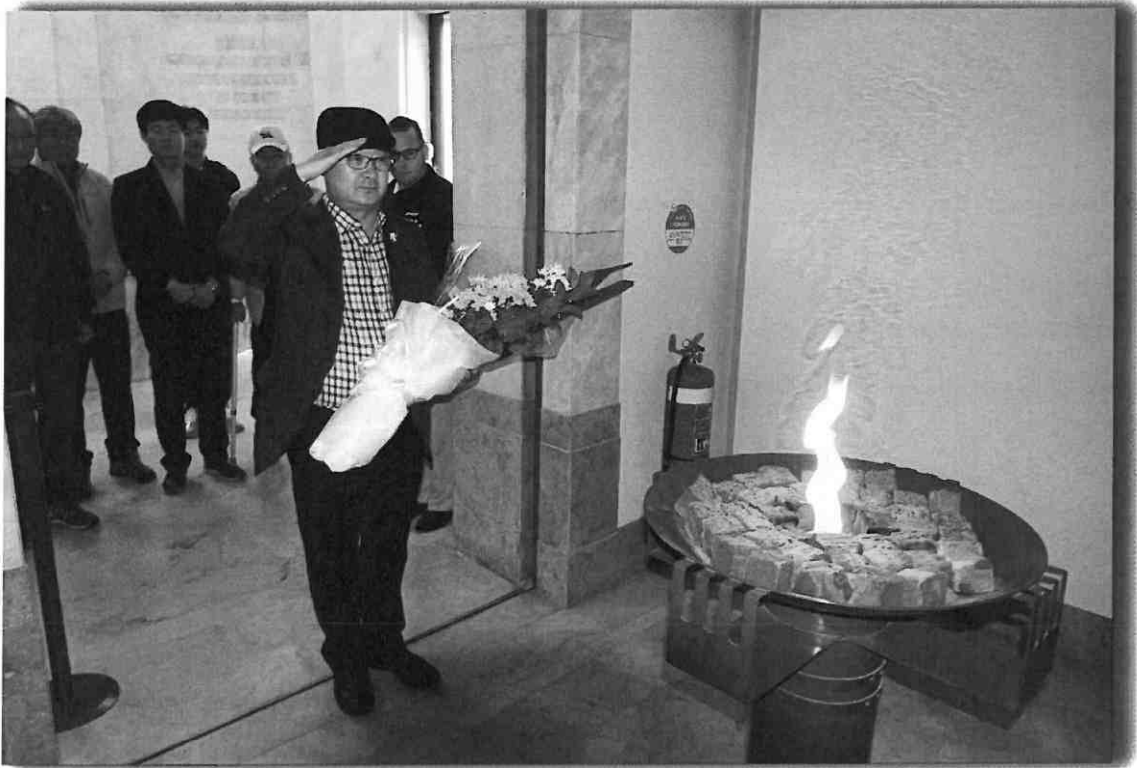
- 시드니 중심 업무지구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하이드파크 남단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우리나라의 현충일 격인 ANZAC데이와 제1차 세계대전 휴전 기념일에 주요 행사가 열리고 있음
- 기념관 건축¹¹⁾ 당시 시드니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시드니항에서도 눈에 띈 랜드 마크로 건축하려 했으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세계적인 건축양식으로 지었다는 것 그리고 시민의 모금이 건축 재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보훈에 대한 선진국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었음
- 대개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시설은 도심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기념일 행사에만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비되는 사례임. 또한 각종 견학 프로그램과 가이드투어를 제공하여, 순국선열의 희생을 이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었음

10)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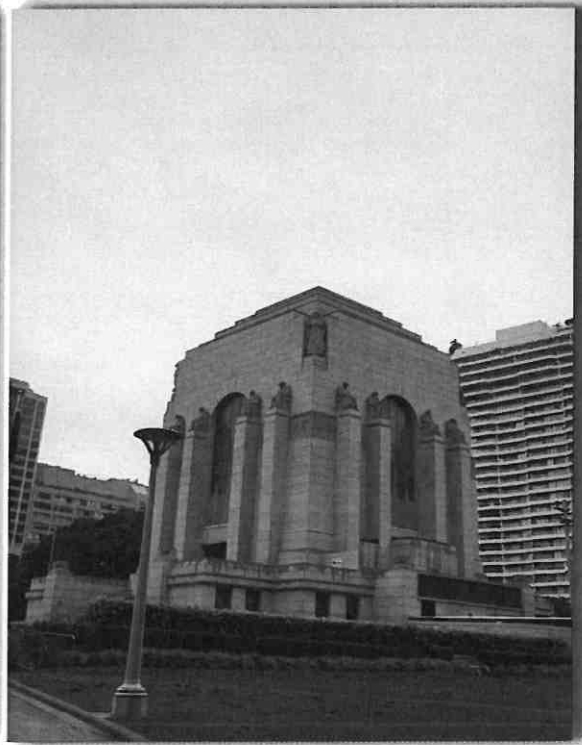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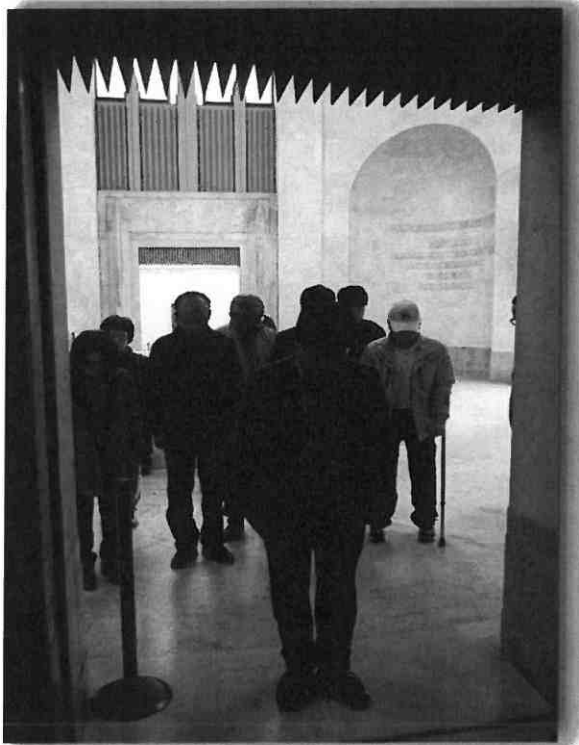
https://ko.wikipedia.org/wiki/ANZAC_%EC%A0%84%EC%9F%81_%EA%B8%B0%EB%85%90%EA%B4%80

11) 자료출처: ANZAC 전쟁기념관 공식 홈페이지 <http://www.anzacmemorial.nsw.gov.au/>

○ 주요 활동사진



《 ANZAC 메모리얼 방문(헌화) 》



《 ANZAC 메모리얼 방문 》

2-2.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방문 (6.28.수)

○ 방문목적

- 세계 유수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관광시장(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현황 자료 수집 및 강원도 관광 진흥방안 연구

○ 질의응답(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김태환 지사장)

-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와의 협업
 - 본사이전으로 강원도와의 협업이 더욱 증대되리라 보며, 관광공사 내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드니지사에서는 각종 행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호주 아웃바운드 시장과 강원도 관광 마케팅
 - 호주 아웃바운드 시장은 2014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및 호주화 약세 등으로 성장세 둔화이며, '16년 기준 주요 출국 목적지 1위 뉴질랜드(124만명), 2위 인도네시아(112만명), 3위 미국(98만명)이며, 방일 호주관광객(30만명)은 콰타스 항공 2편 신규취항으로 전년대비 23%증가, 중국방문 호주인(43만명) 7.2%증가 추세임. '16년 호주인 15만 2천명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호주 방문한국인은 방한객의 2배에 달하는 28만 5천명임
 - 유럽지역 테러여파로 아시아권 여행증가가 예상되며, 한국문화 및 음식, K-POP 등 한국에 대한 관심증가 및 여행 다변화 추세로 방한 증가세 지속 기대됨. 특히, 호주인은 겨울상품에 관심이 많으므로(호주: 남부 일부지역에만 눈이 존재),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인 방한 관광 상품개발 시 어려운 점
 - 호주에서의 한국의 국가인지도가 낮은 편임. 따라서, 교민단체 및 영사관, 재호주 공공기관 등에서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시장인 원거리 여행시장을 개척해야함

○ 주요 활동사진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방문 》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방문 》

2-3.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6.29.목)

○ 방문목적

-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연유산)에 등록(2000년 11월)된 국립공원 보존 및 관광 활성화 사례를 고찰하고, 폐광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현장 케이스 스터디 실시

○ 방문현황¹²⁾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Blue Mountains National Park)은 호주 NSW주의 국립공원이며,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81km(시내중심에서 2시간)에 있으며, 공원 면적은 267,954 헥타르임.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이 지역은 고원 지대로 최고 지점은 웨롱산(해발 1,215m)이며, 최저 지점은 네핀강(20m)이고, 스리 시스터스를 비롯한 협곡 경관으로 유명함.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휘발되는 오일이 태양 빛에 반사되어 푸르게 희미하게 보여 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짐. 또한, 1930년에 환경파괴 방지차원에서 석탄광산을 폐광하고, 이 지역을 관광자원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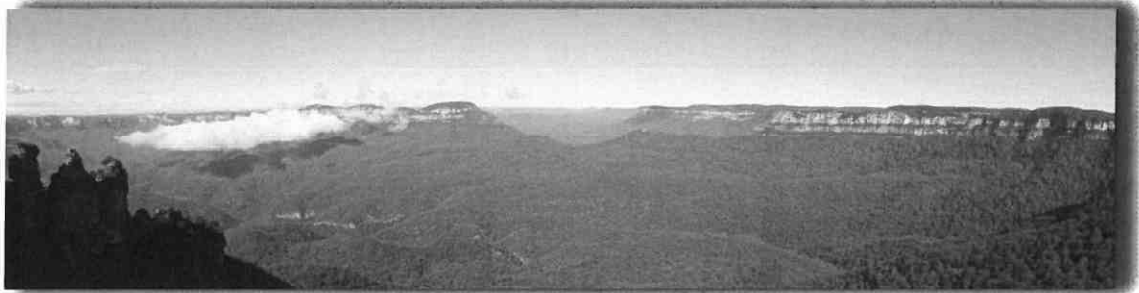
< 의정활동 착안 사항 >

- 시닉월드(블루마운틴의 어트랙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 시닉 레일웨이와 카툼바 폭포 옆 옛 폐광 지대 계곡에 조성해 놓은 워크웨이, 300m 높이의 블루 마운틴 협곡을 연결해 놓은 투명한 바닥의 케이블카 스카이웨이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화한 사례로, 강원도 산악 관광에도 충분히 활용가능한 시설로 보임. 관광편의시설조성으로 노약자의 공원접근성개선향상, 그 외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는 전략 참고할 필요 있음.
- 또한, 석탄폐광을 이용한 관광시설은 도내 폐광지 관광개발사업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캐녀닝(canyoning)을 비롯한 여러 가지 레저활동 및 지질학습이 가능한 트레킹코스, 워킹코스, 캠프그라운드 등 다양한 액티비티 가능

12)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B%B8%94%EB%A3%A8%EB%A7%88%EC%9A%B4%ED%8B%B4%EC%8A%A4_%EA%B5%AD%EB%A6%BD%EA%B3%B5%EC%9B%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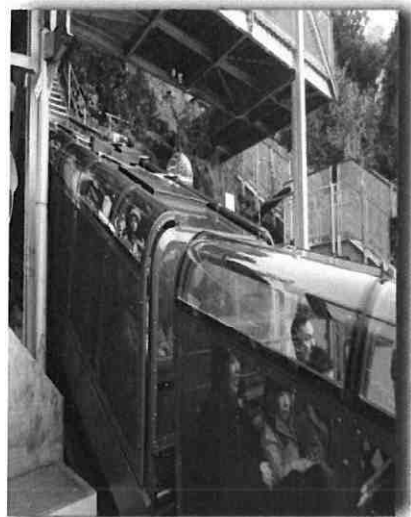
○ 주요 활동사진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어트랙션) 》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페노선, 시닉레일웨이 등) 》

2-4. 윈더미어 요양원(서머힐) 방문 (6.30.금)

○ 방문목적

-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한인 운영 요양원으로 체류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인 노인들로 이뤄진 곳으로, 호주의 노인복지시설 구축 실태와 선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및 위문품(보온양말) 전달

○ 질의응답(windermere aged care facility 원재설 원장)

■ 호주 노인복지시설 개관

- 호주의 노인복지시설은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있으며, 이는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나뉘며, 윈더미어 요양원은 영리기관에 속함. 노인장기요양에 관해 정부의 지원과 대상자 선정을 보자면, 시설의 수요와 공급은 담당 정부기관에서 수시로 조사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등급판정도 정보라인을 통해 요청이 있을 시, 평가팀으로부터 등급을 인정 받게 되며, 시설을 소개받고 요양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등급에 따라 낮은 수준의 간병서비스부터 중증의 서비스까지 차등화된 시설로 보내져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시스템임. 또한, 노인요양에 대한 평가등급승인 시스템이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음

■ 윈더미어 요양원 개관

- 73명의 요양대상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물리치료사, 영양사, 레크리에이션강사, 간호사 등이 직원으로 있음. 요양원 안에서는 정상인의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도 전액 정부지원 이용자와 자부담을 포함한 상급의 시설 이용자가 함께 있으나, 모두 2인 1실의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 호주에서는 보편화된 노인복지시설이지만, 요양원에 대한 한인 교민의 거부감이 초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한인에게 인기 있는 요양시설임

○ 주요 활동사진



《 호주 원더미어 요양원 방문 》



《 호주 원더미어 요양원 방문 》



《 호주 원더미어 요양원 방문(위문품 전달) 》

- 뉴질랜드(북섬)과 호주 시드니로 6박 8일간 짧은 여정에 많은 곳을 방문 대상으로 삼아, 더욱 자세하고, 깊이 있게 국외연수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우나, 기관방문을 포함한 계획된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했음
-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은 환경보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호주 블루마운틴의 사례처럼 규제 속에서도 궤도열차, 케이블카를 통해 해마다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동통로를 일원화해 울창한 자연의 훼손도 방지한 사례는 규제 프리존 지정 관련한 강원도의 산악관광 육성방향 수립에 관련 자료로 활용 가능해 보임
- 수준 높은 복지수준을 갖춘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회안전망구축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아직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와 복지체제는 제도적 보완사항이 많았으며, GDP 대비 복지비 지출현황을 비교하자면, 뉴질랜드 18.5%, 호주 18.0%, 대한민국 6.1% 수준임을 감안해, 복지정책 확대 및 세제개혁을 통한 세입예산 증대 그리고 지방부담 완화(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시군 고려)를 위한 지방재정성 확충(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선진국 레벨의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보임. 강원도의 경우 낙후된 지역여건으로 인해 더욱이 맞춤형복지정책이 필요하나, 한정된 재정력으로 인해 신속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힘든 현실이 안타까움
- 또한, 뉴질랜드와 호주는 특히,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으며, 사람을 우선하는 문화가 반영된 생산적 보편 복지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 뉴질랜드 로토루아 호수 》



《 호주 시드니 하이드파크 內 전쟁조형물 》



《 호주 시드니 한인회 방문 》



《 호주 시드니 한인회 방문 》



《 호주 시드니 한인회 방문(수호랑, 반다비 선물) 》



《 호주 시드니 유명 관광지 內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



《 호주 시드니 유명 관광지 內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